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1

▶ 92회 예고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에게 〈초전법륜경〉 등을 암송해주고 외도들의 교설을 설법해준다. 이윽고 아쇼까왕은 외도로 의심되는 수행자들을 한 사람씩 심사한다. 그리하여 외도로 판단되면 흰 옷을 입혀 아쇼까라마에서 추방한다.



아쇼까왕, 목갈리뿟다띳사 설법을 듣다

빠딸리뿌뜨라성이 보이자마자 목갈리뿟다띳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아쇼까라마를 떠난 지 7년 만에 보는 성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지난 일들이 고요했던 마음을 출렁이게 했다. 강가강 나루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목갈리뿟다띳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쇼까라마 정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말인가.'

아쇼까왕이 담마마하마따를 파견해 아쇼까라마를 관리하고 있고, 장로들이 우뽀사타와 빠와라나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외도들이 숨어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짠드라굽따왕과 빈두사라왕뿐만 아니라 아쇼까왕까지 여러 종교 수행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온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외도들이 불교사원인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면서 계율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므로 7년 전 이때쯤 아호강가산으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라마로 먼저 가서 마힌다의 꾸띠를 찾았다. 그 꾸띠는 자신이 머물렀던 처소이기도 했다. 마침 마힌다는 사문들과 함께 우뽀사타 법회를 마치고 오고 있는 길이었다. "스승님, 오셨군요."

"대왕님께 바로 가야겠으니 안내해 줄 수 있소?"

"방금 법회를 마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뽀사타야말로 사문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우뽀사타뿐만 아니라 빠와라나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 우뽀사타와 빠와라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소만 두 법회를 되살려 이어오고 있다니 고맙소."

"다만 외도들이 슬그머니 끼어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몇 달 전에 마힌다가 아호강가산으로 와서 외도를 추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쇼까왕뿐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아쇼까라마에 1천 명의 장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대왕님은 외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소?"

"승가의 보호자로서 반드시 외도를 추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왕님께 붓다의 어떤 가르침부터 설법했으면 좋겠소?"

"붓다께서 처음으로 다섯 수행자들에게 설했던 초전법륜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힌다 장로는 초전법륜경을 어떤 경이라고 생각하오?"

"붓다께서 설한 가르침의 시작이자 모든 진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힌다를 시중하는 사미가 항아리에 손발을 씻는 강가강 강물을 가져왔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손과 발을 씻고 나자 마힌다가 말했다.

"아침 일찍 대왕님을 뵈었습니다. 대왕님은 스승님의 설법을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힌다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왕궁까지 안내했다. 마힌다는 왕궁을 수시로 드나드는 장로였으므로 왕궁 정문 수문장은 아무런 검문도 하지 않았다. 수문장 옆에 있던 경비부대 조장이 목갈리뿟다띳사를 검문하려고 하자 마힌다가 제지했다.

"대왕님께서 부르시어 아호강가산에서 오신 장로님이오."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대왕님은 어디에 계시오?"

"예, 대왕님은 가족 분들과 함께 후원에 나가 계십니다."

왕궁 후원이라면 아쇼까왕이 가끔 장로들을 초대해 공양을 베푸는 장소이기도 했다. 후원 살라나무들 밑에는 장로나 구루들이 공양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아쇼까왕이 설법을 청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장로와 구루들이 긴장했다. 아쇼까왕의 눈에 들면 후원에서 일산이 펴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두말띠 꽃들이 떨어져 마치 붉은 천을 깔아놓은 듯했다. 과연, 아쇼까왕의 가족들은 과일이 놓인 야외식탁에 앉아서 짜이를 마시고 있었다. 마힌다와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 앞으로 가서 합장을 했다. 아쇼까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장로님이시여, 어서 오시오."

"대왕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로님의 설법을 기다렸소.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없겠소? 내 가족에게 행운을 주고 싶소."

그제야 아쇼까왕의 가족들이 목갈리뿟다띳사 앞으로 와서 엎드려 절하며 합장했다. 아상디밋따 정비, 띠쉬아락시따 왕비, 아쇼까왕의 손자 삼빠딘, 아상디밋따를 시중하는 우두머리 궁녀 띠사락슈미 등의 순서로 목갈리뿟다띳사의 발에 오른손을 대는 인사를 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처음 보는 삼빠딘의 머리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다. 삼빠딘은 여러 왕손들 중에서 지략이 뛰어난 데다 용맹해서 아쇼까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꾸날라의 아들이었다.

꾸날라는 탁실라 부왕 때 두 눈을 실명한 채 성 밖으로 나가 탁발승이 되어 떠도는 상태였고, 그의 측근 심복들은 이웃나라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띠쉬아락시따의 음모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사람에 불과했다. 책임이 있는 탁실라의 세습 대관들도 아쇼까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띠쉬아락시따의 음모를 비밀로 묻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삼빠딘을 축복해 주자 누구보다도 아상디밋따가 좋아했다. 아상디밋따는 꾸날라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띠쉬아락시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꾸날라가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자 그를 탁실라로 보낸 뒤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띠쉬아락시따였던 것이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나는 더 기다릴 수 없소.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법해 주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는 마힌다와 사전에 설법할 경을 미리 정해두었으므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모든 경의 근본이 되는 초전법륜경을 설법하려고 했다. 물론 목갈리뿟다띳사는 초전법륜경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었다. 경을 암기하는 것이 장로와 사문의 차이였다.

아쇼까왕은 자신의 자리를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양보한 뒤 가족들이 있는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았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다.

"붓다께서 삡팔라나무 아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지 7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붓다께서는 이 진리가 너무나 심오해서 어려우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어 진리를 설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붓다의 생각을 안 범천 사함빠띠는 붓다께 나아가 눈에 먼지가 덜 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해주기를 청하였고 붓다께서는 설법을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고행을 하면서 시중들던 다섯 수행자를 생각하시고 진리를 설하시기 위해 삼보디(보드가야)에서 녹야원(사르나트)으로 가셨습니다.

붓다가 오시는 것을 보고 다섯 수행자들은 인사는 물론 시중도 들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위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정중히 모시게 되었고 붓다로부터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하신 최초의 법문이 바로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신 내용의 〈초전법륜경〉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를 설한 붓다의 가르침을 아쇼까왕 가족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는데 병색이 완연하고 바짝 야윈 아상디밋따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꾸날라를 많이 닮은 삼빠딘은 큰 눈을 두리번거릴 뿐 아쇼까왕처럼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경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시작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앞에 놓인 짜이로 목을 축인 뒤 이번에는 붓다가 다섯 수행자에게 설한 '사성제' 와 '팔정도' 를 그대로 들려주었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그때 아쇼까왕은 경비대장의 귓속말을 듣고는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목갈리뿟다띳사는 〈초전법륜경〉 후반부 설법은 초저녁으로 미루었다. 아쇼까왕이 바로 처리해야 할 공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에 예정돼 있던 공무였다.

'내가 장로님의 설법을 듣느라고 잊어버렸었군!'

갑자기 목갈리뿟다띳사가 설법을 멈추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띠쉬아락시따였다. 아쇼까왕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자꾸 흔들면서 꾸날라를 연상시키는 삼빠딘을 쏘아보곤 했던 것이다. 아상디밋따는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다 듣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리에서 가장 늦게 띠사락슈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아쇼까왕은 서둘러 집무실로 돌아왔다. 아쇼까왕 집무실 앞에는 각 도시로 파견될 신임 담마마하마따들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느라고 담마마하마따 임명장 수여식을 깜박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계속〉

불기 2567(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인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6780-9190	배철완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문화사업단	010-3048-4008	구광국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